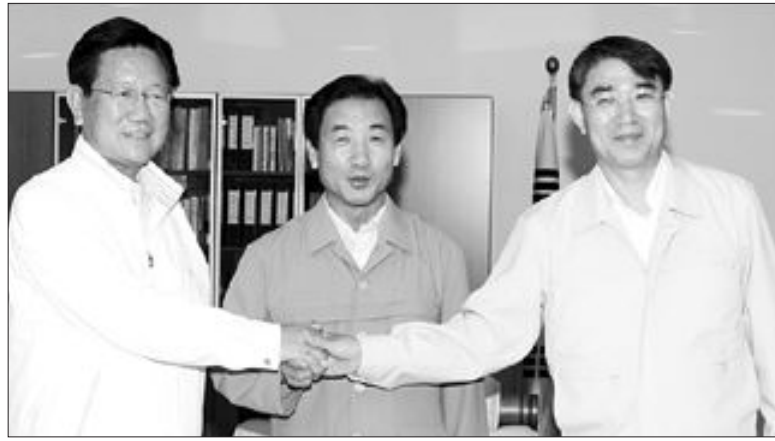


민주 경선방법 불만 여수·순천·광양시장 무소속 연대 논의

‘우근민 악재’ 잠재우기 고심하는 민주

광주·전남 단체장 탈당 도미노?

강진·신안·장성·광양 무소속 출마 확실



지난해 8월 28일 행정구역 통합 논의차 여수시장실에서 만난 이성웅 광양시장,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왼쪽부터). 이들은 지난 13일 만찬을 함께 하며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원칙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 민주당 주류 측이 추진하는 경선 방법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여수·순천·광양시장이 최근 만나 행동 통일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무소속 연대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다.

여수 오현섭 시장, 순천 노관규 시장, 광양 이성웅 시장은 지난 13일 순천의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노 시장은 “전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며 오 시장과 노 시장은 지난 12일 민주당 공천신청을 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평소 순천대 광양캠퍼스와 광양만권 도시통합 문제로 서먹한 관계였던 이들이 민주당 주류 측이 전남 동부권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것이어서 정치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이날 자리에서는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붙일 경우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장 무소속 연대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명분이 없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 나를 죽이려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무소속 연대가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14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소속 출마가 확실한 현역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이철 장성군수, 이성웅 광양시장 등 4명이다. 또 민주당 지도부의 경선 방식 선택 등에 따라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등도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기초단체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 광산구·나주·함평·진도·담양·구례·곡성·화순 등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공직이거나 광범한 경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경우 유력 후보의 탈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전체 27개 시·군·구의 3분의 2가 되는 지역에서 유력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무소속 연대가 이뤄져 민주당 1당 독주의 계통을 걸 수 있는 가

장 큰 정치세력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비록, 다른 지역 출마자와 연대 없이 전남 동부권에서만 무소속 연대가 이뤄져도 민주당 후보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자칫하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강력한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a@

공심위 ‘제주지사 공천 부적절’ 건의키로

민주당이 성희룡 전격으로 논란에 휩싸인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면 당초 내세웠던 개혁공천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뿔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지도부는 ‘우근민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 출신 재선으로, 제주도당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 제주지사 경선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4일 열린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도

우 전 지사 문제와 관련, 제주도지사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우 전 지사 문제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지자 경선 참여를 요청했으나 지도부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다. 당 현상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있기 6달 전까지 지원장직을 던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 후보 공모도 김 전 지사와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등 2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이대로 경선이 진행된다면 우 전 지사 논란이 진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경선 범위를 넓혀 보다 엄정하게 거르자는 쪽으로 방향 선회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당헌 문제 때문에 김 의원을 경선에 참여시키려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기 힘들다는 생각”이라며 “보다 치열한 방식으로 후보를 가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 전 지사가 여전히 조직이나 인지도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의 이런 복안이 ‘물타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나온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성희룡 전격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 공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남지사 경선 내홍으로 번지나

김기룡 도당위원장 MB계 김대식 회견장 참석에 MJ계 김문일 “중립성 훼손” 도당위원장 사퇴를

한나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놓고 내홍(內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남지사 후보군 4명 가운데 ‘친 MB(이명박)계’이자, ‘범 이재오계’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친 정몽준(MJ)계’인 김문일 예비후보 등 2명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특히 ‘친 이재오계’인 김기룡 전남도당위원장이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후보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친 MB계와 친 MJ계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도지사 경선이 계파 간 대립으로 비치는 가운데 김문일 후보가 김기룡 위원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친 이재오계’인 김기룡 위원장이 지난 11일 친 MB계인 김대식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놓고 김문일 후보가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일 예비후보는 “오래전부터 위원장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을 나서려면 도당 위원장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나서라”며 도당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기룡 위원장이 당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룡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대식 후보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며 “중앙당에서 지사 후보 경선을 한다고 결정이 나면 도당위원장이서 결정할 경선 관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식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문일 후보는 “김대식 후보 측과 도당 일부에서 ‘전략공천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도지사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후보는 “모든 것을 당에 맡겼다. 당의 뜻대로 따르겠다. 자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참여경선 방식도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후보 간 선의의 경쟁과 대립이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차기 유력 정치인들의 당권 도전 등을 앞둔 대리인들의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 ‘선거 출마 러시’

최고위원 절반 출사표 ‘공백’ 장기화될 듯

‘최고위원 없는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계절에 접어들며 때마침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최고위원들의 6·2 지방선거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어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위해 잠시 여의도를 비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김진표, 안희정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지고 선거 행보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지도부 ‘차출론’ 차원에서 386세대의 만행적인 인선 출신의 송영길, 대구 출신의 윤덕홍 최고위원이 각각 인천시장과 대구시장 또는 경북지사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어 출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체 최고위원(9명)의 절반 가량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어서 당 안팎에선 “정 대표 혼자 회의를 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농반진반의 얘기가 나온다.

지방을 오가는 바쁜 스케줄을 조율하다 보니 최근 들어 심야에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일도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도부 인사들의 잇단 결원으로 세종시 등 현안이 산적한 4월 국회에서 대어(對與) 전략 조율 등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있다.

이번에 출마한 인사들이 당선될 경우 지도부 공백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지도부 임기는 오는 7월초에 끝나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차기 전당대회 개최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8-5008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요리학원

●●● 방문상담대 환영 합니다! ●●●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기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간판
배포
현수막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중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